

7년여의 유행사리후 진상당한 허위선생

1. 유행사에서 진상당한 허위선생

나는 가정부인의 한사람으로 잘 쓰지 못하는 글로써 태도
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쓰려고 한다.

즉 나는 큰 20년 동안의 긴 세월을 북조선에 47년 4의 남편
허위와 함께 살어온 사람이다.

최근 20년 동안의 허위에게 대한 사실들과 같은 그때 북조선 내
정세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을 쓰려고 한다.

내가 쓰려고 하는 사실들은 하나로 귀속이 있는 내가 직접 보고, 들
고 지나는 나의 생활에서 한 단락을 그리고 있다.

먼저 허위에게 대한 간단한 이력부터 시작 하려 쓰겠다.

허위는 1911년 9월 18일 Лябаволек 구역 자우촌에 탄
농촌 민농부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. 그후 소학교를 졸업후

"이민"이란 글에 가서 칠년제원 중학교를 졸업후 원종소 학생
사범 권을 학교를 졸업하였다. 1932년 부터는 Лябаволек

시조선 중학교에서 교원 또는 교장으로 일하였다. 다음 1934년
에 Ленинград 종합 사학 어문 학부에 입학하여 1939년에 2중

합 사학을 졸업하였다. 그후 1939년 부터 Казарцевск에서
사 Туркестан 시 교원 대학에서 일하였다. 소련 조국전쟁시기

에는 Казарцевск Пыльное 구역 중학교에서 일하였고
1942년 - 1943년 시기에는 문맹 권선예복무하였다. 다음 1943

년 부터는 Позднеевск Ильинск 구역 중학교에서 일하였다.

1946년 가을에 북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소련 정부의
공산당의 과원으로 36명 추대의 한사람으로 북조선으로 발

행하였다. 북조선에 가서 처음에는 김일성 종합 사학 어문 학부 강좌장으로
일하였다. 그 같은 해는 동맹방시 사범 사학 학장, 인민정체 사

학 학장으로 일하다가 1954년 부터는 북조선 륜금강 지방
강 학교 교장으로 (일하였다) 1959년 까지 계속 일하였다.

이상으로 허위에게 대항 이력은 중지하고 자을 계속하여 쓰겠다.
던 허위 가의 침투 하에 쓸것은 1956 부터는 소련에서 4가
일하는 사학을 비 국적 유체 해 결하는 사건이 시작 되었다.
그 말에 대한 권 채 북조선 내에서 소위 "사상검토" 라는 사범이 시작
되어 가 되고 그 "사상검토" 는 처음에는 소련에서 4가 일하고 있는
중요 간부 들로부터 시작하여 가 되고 그 말에 대한 권 채 북조선 내
간부 일군들, 권 채 인민들, 소련에서 4가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,
중국에서 4가 사학들, 일 채 사학들부터 조선 허 망운들에게
강 열성적으로 활동한 사학들 끝날 조선에서 4가 이 은 애국자
를 까리든다 그 검토에 허 열적이 시작 하였다.

그 사상검토에 결된 많은 사학들은 허 열을 당하여 관공으
루, 모 ~~해~~ 능광(소위)으로, 북조선 내 관광, 광산 지의 열공조
향으로 가지 내물 지에서 죽어 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
약후한 정책이 권 채적으로 권 채 되고 있다.

그 사상검토에 결된 수 많은 사학들을 허 위이로 한 사학으로
로 되었다. 다시 허 위에게 대항 계속하여 쓰겠다.
허 위이는 북조선에서 4가 지 근 19년 동안 허 망후 북조선으로
계통에서 무 문히 일하여 온 사학이다.

아문은 지 근 1959년 가을에 허 위이는 중앙 당 학교 교
장에게서 해 있고 청진 광산 대학 무 학장으로서 가 가고 망 망하
였다. 그러나 그 2 단계를 거쳐 2 개 단계를 거쳐 허 망후 북조선
으로 떠나고 차를 짜 버리고 있는 허 위이를 244 지 못하
게 중지 시키고 가 되고 중앙 당 학교에 붙여 놓고 8-4 개 월동
안이나 게 고 끝 버 가면 시 허 위이를 걸든다 가 되었다.

그 검토의 망 망이 이 때 하 았다는 것은 이 들을 4 쓸수 있다.
그 시기에 북조선에 있던 사학들은 가 결할것이다. 그러나 생각한
주 정치 활동자, 종파주의자, 가족주의자, 소련 사학이 들다,

은.

소련에서 4간사 함들과 친한다는 사실, 아이들과 내가 소련 국적을
 가리고 있는가라는 사실, 아이들을 소련으로 유학보낼라는 사실 그
 때까지 원인을 죄를 들술까지 각 1백하지 않는다는 것 여를 한
 죄를 들술 때까지 청천 광산에 학은 존재 없이 물러가고 1959년
 말에 허위이름 북조선 군중당에서 출강여관 행행을 낼게 되었다.
 출강 행행이 4월 후에 러날을 끌어다가 함남으로 보내지 배치
 를 맡으라고 행행 하였다. 함남도당에서 온 수령은 으루 보내었고
 수령에게서 신 설 수령한 여관 광산은 보내게 되었다.
 환관 업무부에서 출강을 하게끔 하였다. 허위의 이름을 가지고 르한
 한 정배 살아가게 하였다. 허위이름 원 태 2년 후에 아주 나쁜
 사 람이 되, 취급이 사 람에 능숙함을 알고 난후 그 여 행을 계속 하
 를 맡아가 행 사 람이 간사 람이 가.

허위의와 나로 교 랑에서 허위 리기 원부러 여 러 1번을 걸치어
 소련 으루 리쿠는 들 술을 중앙 당에 제기 하였으나 작가지 회
 달로 번번히 거 절을 당 하고 말았다. 나는 여 러 1번을 걸치어 소위
 중앙 당 잘 자 조부 과 무를 과 맞 4기 후의 한 사실 들을 이야기 하였으
 나 가 아문 필요 없었나. 그 원 간을 은 북조선 정부와 군중 당 의 리 시
 를 설 친 하 는 라고 청신 병자 문 양은 보내 주고 있었나.

전 경치로 못하고 아문 큰 거 큰 은 죄 랑은 여 불 쌍 하게 오 쌍
 하고 있는 허위의를 어떻게 하나 구원 하 게 가지고, 서 월 이 들
 러 가 노 라 명 라 해 행 하 게 가지고 소련 에 와서 그 림고 받고 설
 려 아 여 들과 친 칩 들을 맞 나 시 고 여 들 한 일 들을 옛 말 하 면 시
 잘 이 볼 것 가 는 것 여 나 의 큰 볼 무 름 이 었나. 그래서 나 는 나 아
 있는 루 아 들 을 소 련 에 가 례 가 가 Москва 시 시 카 오 아
 УНКВД에서 공부 하 르 루 리 에 한 후 민 차 초 전 으루,
 허위 이 있는 환관 으루 찾 아 갔나. 수령 환 관 에 가 시 1년
 이 런 긴 세월을 나로 허위의와 함께 그 정 배 살 이 들 맞 볼 게

되었다. 북코성 어찌나 불을 올리고 그 환광에서 큰 구덩이를 파고
용시공한 하엿다. 그래서 칠에는 한 큰 용과 원 방한 구덩이
서로 살았고, 날의 짐을 땀에서 큰 활을 써 각가지고 생을 하
가 힘에 힘을 다하여 엄무부 큰 용과 들의 방으로 환광 짜리
짐을 끌게 되었다. 그래서 자기 짐이 타는 데서 살기 시작하
엿다.

환광에서 사느라 만우리는 큰 괴변과 같은 처지에서 살아갔다.
누우보라 큰 구덩이 원과 사기가 우리를 못살게 하였다.
우리는 누우와 원의 친하지도 못하고, 짐을 하지도 못하고, 화를 끼
고 몸지하도 않는 허약의 죽을 짜라야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.
후수가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그 구덩이 원과 사기가 알게 만
되었다. 별가지 수간으로 그물을 심어 놓고 못살게 하였다.

구덩이 원과 사기가 이 두 가지 일을 조망하게 되면 사람을 본 인차
우리에게 ~~사~~ 그 사실을 다 친하게 구경하게 되었다. 허약이 두 원
을 큰 용을 잡아먹고서도, 그 원강이 나쁜 것은 환광이 아닌 열심
적으로 일하게 된다. 그 후 죽은 사람 죽지 않고 살아서 되풀이
되면 그 미를 한 문 제물을 다 해 명하고 살아 볼까라는 희망이 있다.
나쁜 옛시나 의 힘과 자라는 데까지 허약이를 죽이고, 방조하고
보살피고만 살아간다. 우리는 틈이 큰 의를 써 살아간다.
그 의롭고, 천 때 느리고, 몇 시를 밤에 가면 살아갈 2
사실을 아는 이들을 다 살 수 없다. 각가지고 생과 공한을
무릅쓰고 활이 가면 서 하루 하루 새 활이 활이 되며 무력이
완전히 활을 살아가던 일은 30여 명이 활강에 활이 지나간 은 활이
사도함상내 타리 후에 때를 써서 새 활을 괴롭히고 있다.

허약이 두 원 큰 용을 하고 난 후에 큰 허약이 다 만는 활을 다
직접 환광내 두 사 회 큰 원을 나가곤 하엿다. 나쁜 자 큰 무인의
한 사람으로서 인 번 번에 서 자기 리로 사 회 큰 원이 한 일에 계속

3. ~~화가하~~

~~화가하~~ ~~했다~~. ~~년~~ 가지 일을 다 하야 보았다. 힘은 조항 지 스투에 보냈고 관킬
근 지어 보고 환광 건축 사업에 요구 리는 들 짙은 곡리가 부어 나 른 록 이고 다 나
었다. 그럴사 회 중 원 불 나 갖다가 은 후에는 나쁜 의 칠 시 일 지 불 하고 앓고 지 냈다.
북조선 정부와 온 룡 광 온 광 들 등 전 룡 에 전 룡 을 하다가 북하에 그 무엔 관
까지 지도 전 룡 하 노 라고 무엔 환 불 불 에 이기 어 가 지고 량이 리 환 불 받 은 후 그
량 이 리 환 에 구멍을 풀러 가 지고 소우 구멍 환 에 환 환 들 가 지고 앓으 려 하고
시사 르 짙은 하 였다. 그 구멍 환 들 가 스 온 룡 이 어 구 실 하에 여 러 지 방 에 서
~~화~~ 사 람 들 이 와 나 죽 어 가고 있 었 다. 어떤 가 족 들 은 불 맥 죽 고 말 았 다.

구멍 환 에 가 스 온 룡 이 어 구 실 하 하 고 다. 할 수 없 어 우리 는 2 구멍 환 들
환 들 어 가 지고 사 용 하 였 다. 이 리 죄 인 과 같 은 처 처 에 서 살고 있는 우리 가 그
정 부 와 량 이 리 시 를 실 천 하 리 앓고 산 두 면 그 괴 를 이 령 가 하 겠 는 가?
북조선 군 룡 자 - 온 룡 자 농 인 들 이 2 가 광 합 구, 온 환 환 생 활 은 다 이 령 라고
말 할 수 없 다. 환 광 합 구 이 라는 것 은 사 람 이 사 는 집 이 라고 할 수 없 으 나.

환 광 온 룡 자 들 의 매 음 은 온 룡 자 8000p. 흑 생 들 (아 이 들) 4000p 가 정 부 인
를 3000p 의 매 음 이 었 다. 그 매 음 이 30% 밖에 백 되고 그 량 은 은 여 러 가지 잡 곡
자 수 룡 은 감 병 이 살 이 하 는 것 이 었 다. 아 이 들 과 가 정 부 인 들 은 하 루 루 먹 으 러 가
우 겨 우 먹 는 령 이 었 다. 주 었 을 받 령 심 을 늘 령 하 노 라고 부 인 들 은 처 리 리 를
조 라 배 령 사 람 다. 러 우 히 부 인 들 이 해 산 후 에 도 배 를 곯 으 면 서 마 기 를
깃 가 리 먹 이고 ~~살고 있는~~ ~~살고 있는~~ 나 그 일 다 나 환 심 하 고 불 생 환 의 말 할 수 없 다.

환 광 온 룡 자 들 의 생 활 은 아 구 이 령 하 였 다. 불 다 다 종 병 이 살 앓 아 된 량,
관 장 소 곱 을 가 리고 뛰 고 사 는 령 이 었 다. 리 어 불 기 령 짜 리 는 여 러 말 을 걸 치
이 령 보 령 수 령 인 구 에 1000p 령 은 룡 주 고 있 었 다. 그 령 에 그 령 겨 룡 은 환 령
생 령, 리 어 마 른 령 때 가 리 룡 어 리 먹 기 령 을 었 다. 일 년 치 고 르 고 기 령 은
것 은 수 령 보 령 생 령, 조 룡 국 령 령 건 령, 사 해 짜 리 겨 우 사 령 보 령 걸 치 어
먹 는 령 령 이 었 다.

환 광 매 음 을 가 지고 살 이 가 기 는 아 구 이 령 었 다. 그 리 나 는 쪽 가 리
방 령 는 온 배 를 곯 지 앓 고 살 이 가 룡 룡 룡 령 하 였 다. 그 시 를 들 때

물에 물변에서 세번씩 꼭 평양에 다녀 오곤 하였나. 평양에 다녀 오면
은 쪽으로 연천부에서 주는 흥행금이 라는 것이 있어 된다. 그래서 나는
평양에 있는 소련 대사관에서 가서 약속 하였나. 꼭 물변에서 세번씩
나를 평양에 가도록 대사관 뭘 흥행금 ⁴을 흥행하에 잘하고 약속 하였나.
소련 대사관에서 주는 나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 약속을 잘 지키기
를 나를 평양에 가도록 흥행하에 구곤 하였나. 그래서 나는 별곤 한
없이 흥행금을 내어 가지고 평양에 다녀 오곤 하였나.

소련 대사관 영사부에서 나에게 많은 방포를 주었다. 그 방포는 아
나 할터면 나는 어떻게 살았겠는지,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할터면
~~살았겠는지~~ 보곤다. 그때 대사관 영사부장 Kopun
Hukonarebur Dygonaryob 의 그 후환방과 그 인형을 나는
제련의 빛을 수 있다.

평양에 다녀 오면 그때마다 대사관 상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
귀로품들과 잘히 나에게 극히 요구되는 약들을 사 가지고 다녀
서 허위의 전광을 보살피곤 하였나. 사장이 되고 나는 식료품이라
는 것은 어떤가를 보곤다. 그 별다른 것을 흥행하에 이의복으로
김을 흥행하에 가지고 다녀는 제련가 없다. Tarca, 김지꺼곤
은 것론 타르곤 것론 있다. 그 북쪽은 잠적을 흥행하에
다행하고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
허위의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
죄르 단 단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

북조선 인민들은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
하고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
관광권과 식부흥금과 식부흥금, 잘 구구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
이 할 수 있는 약속한 인권을 이었다. 그 관광의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
그는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 흥행하에
지나갔다.

4.

허위이는 환광 업무부름 큰음 즉 원종달 밖에 의 일하맨서고 평하엿다.
그 건강이 나빠 나빠 리는것은 헤지않고 별성적으로 일하엿다. 어떻게하
나 죽지않고 살아보겠다는 희망이엿다.

환광 리베인, 강 리원광, 심부름꾼, 그 재원 여권과 거들은 언제나
우리를 빌게 큰놓고 별시하는 정로에서 우리를 깨지하엿다.

그러나 환광 운동과 들은 늘은 비결은 이 할것 없이 항상우리를 존경
하엿다. 그들은 항상우리를 위하엿고 우리악미를 환사정을 리
해 하에 주곤 하엿다. 그 한가지 고 많은 일로 나는 언제나 잊을수 없다.

허위이는 그 음 운동을 하는 고 생각보다 심리상고 흥이 러심하여
그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잇엿다. 그 신세카를 상하카 짝이 잇엿다.
아이들과 친척들로 하나도 없이 라만 우리들이 그 말을 들서를 차나보면
해서 그 날 그 날을 살아갓다.

이상에 쓴 것 같이 문은가지 큰 환과 고생을 힘어가맨서고 이를 환히 지
에서 살다가 허위이는 1966년 4월 26일 소위 그 구 명탄의 가스음류
으로 55세 환부에 미참 하계 세 상려하고 밧엿다. 환사스음류이 이
렇게 생기 멧는지 누가알가? 큰 죽을(101살로) 막아줄 멧는지 문는다.

그때 때 마침 허위이는 혼자 침에 잇게 리 잇다. 5월 1일을 밧우고 소
련 대사관에서 나를 평양에 오라고 칭 하엿엿다. 소련에서
공무하고 잇는 아이들까지 소식은 대외사관에 잇고 평 대사관 상
점에서 식물품으로 몸싸가 라는 내용이엿다. 마침 4월 24일 리의

에 나는 평양에 다녀 오려고 리 밧엿다. 나는 평양에 가서 불 밧은 다보
고 식물품으로 몸싸가 리고, 무늬는 짐 짝을 끌고 29 아침에 평사역
이리-리리 큰 착하나 허위이가 나를 마 음하 리얏엿다. 그 전에는 내가
오른날과 때론 나를 계속 마 음하 리하엿다. 마침 역에서 내 차아는

가정 부업 환에서 가가 나를 마 음하 멧서, 의 리나 의 리 침에 가셔보
하고 나를 늘 품 열물로 마 음하엿다. 나는가지고 감 짐 짝을 리고
아는 데 가 짐에 부 리 리고 침실 없이 리 리 짐 마 량에 들 리서 42주

은 나에게 그런 미안한 일을 생각하자마자 혼자살 하겠다는 죄까지 할부
 하게 되나 나의 행 편이 미안하 겠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알 것이다.
 그러나 나는 악을 내어 쫓기를 차라리 편히 그 인간들에게 미안한 사
 람은 보이기 싫은데고 결심 하겠다.

그때 마침 허구의 사 랑 때문에 할부 르 큰 랑에 시 고 바 시 야 자
 윗 겠다. 그 인간들로 허구 야가 죄가 많아서 자살 하 겠다 고 불 하 면
 서 나 를 기 원 까지 하 겠다. 아픈 큰 거 큰 영 이 불 상 타 게 고 생 타 라
 가 세 비 찬 하 게 세 상 떠 난 그 에 게 자 살 이 환 죄 가 지 시 우 게 되
 는 일 이 어 무 나 어 클 하 여 서 어 려움 게 하 면 좋 겠는 지 생 각 나 지 않 겠다.
 나는 아 못 리 생 각 하 여 큰 그 자 살 이 환 죄 를 벗 기 하 여 는 할 수 없
 이 해 부 하 라고 승 낙 하 겠다. 해 부 한 결 과 환 가 스 큼 큼 의 확실
 히 나 차 나고 그 두 박 엠 비 엠 로 그 건 강 이 마 우 나 뻗 사 람 이 라 는 것이
 라 음 멩 리 겠다.

그때 나는 의 롭 은 사 랑 으 르 서 그 런 미 안 한 일 들 지 나 은 일 가 호 들
 생 각 하 면 뽕 은 세 월 이 홀 러 관 주 르 30 여 년 이 지 나 관 은 홀 에 의 시 르
 들 서 지 가 지 근 한 다.

옛 말 에 자 루 쥘 늑 나 이 가 지 볼 쥘 늑 나 이 기 두 하 는 수 으 르 그 인간 들 이
 아 못 짓 이 나 하 여 큰 나 에 게 큰 아 못 권 리 으 없 겠다. 지 금 생 각 하 면 내
 가 어 려움 게 살 아 서 어 쥘 런 으 후 약 은 지 하 는 처 분 이 생 기 근 한 다.
 할 수 없 이 없 무 부 르 롱 과 몇 수 롱 과 나 홀 자 서 우 지 가 쥘 런 쥘 에
 서 멀 지 볼 게 옛 은 쥘 을 재 기 에 허 구 야 시 채 를 분 시 게 리 겠다.
 장 예 후 나 는 랑 의 원 쥘 을 찾 아 가 서 이 비 살 런 쥘 에 나 는 홀 자 서 분 목
 살 겠 으 나 후 누구 쥘 에 나 갈 이 있 게 할 라고 말 하 겠다. 그 때 나 는 이
 미 돌아 가 신 랑 의 원 장 쥘 에 함 게 있 게 리 겠다. 그 쥘 아 우 러 나 는 나 를
 마 나 위 르 하 면 서 나 를 품 아 주 겠다. 그 아 스 러 나 일 은 매우 고 망 겠다.
 허 구 이 를 보 신 지 한 10 여 일 후 에 나 는 평 양 으 루 러 나 겠다.
 평 양 에 있 는 소 련 재 사 관 쥘 사 부 에 찾 아 가 서 자 서 히 이 야 기

~~이것이~~ 하 였다. 나는 평양에서 멀지않게 있는 소련 북부에서
 모리에서 허위 의사 처를 다시 음계 받으려고 때때로 여기 저기하
 나 그렇게 하 타고 인차승인 하 였다. 소련 북부에서 때때로 이 지 번 시
 처를 다시 음계 받는데는 물론이거니와 북조선도 지부에서 제기 하 여 해결 하
 라고 하 였다. 그 후 지부라는 데서 그런 때일 때 늘 났다고 말 했다.
 때때로 영사 부장 (Торный Инспектор Дипломата) 과
 함께 나는 여러 기관으로 다니면서 힘쓰며 끝내 기 켈을 남
 하고 말 했다. 무엇 보자면 허위가 살아 있는 이야 부연 증언의 긴
 세월을 관망에서 정애 살이를 하 려고 사 설을 쓰 주고 두고 옛날 허위의
 살아 보겠 다 런 나의 희망은 간 데 없 어 무너 지고 말 했다.
 허위가 한 사람을 살리려고 나눈 세상에 낫가 그 런 별고 생
 을 다 하 였 것 만 그 사람은 세상에 나고 말 했다. 관망에서 할 수 없는
 일을 다 하 였다. 너무도 무식물이 관 관 하 여서 짐바 강에 댐을 파고 캐 소
 르 심 무 언 랫고 일 각을 치어 서 그 계 관 들 어 너 가지고 허위의 강강을 보강
 하 운 하 였다. 배를 다 가지고 살 편 의 각을 치는 일은 매우 힘들었 으나
 나는 다 해 리 았고 비 물을 각을 먹 이 면 서 그 계 관 들 일 르 롱 하 였다.
 이런 일 저런 일 소 소 련 것 을 다 산 과 맨 이 줄 줄 는 다 쓸 수 있다.
 옛날 에 고 생 끝 에 는 확 이 있 다고 하 것 만 그 확 은 나 를 희 하 여 지 나
 가 서 나 에 게 환 인 는 옛날 을 기 치고 말 했다.
 허위 이 든 들 아 갖 지 만 나 까 지 죽 는 나 맨 외 들 히고 생 하 든 아이 들 을
 두 가 를 보 겠 는 가 하 든 생각 들 을 하 고 들 았 는 모양 이 다. 그 때 나는 뉘 네 까
 지 죽 지 았 았 는 가 고 현 하 였 랫다. 그 때 나 산 자 램 은 살 일 을 잘 는 다
 는 옛날 은 았 는 가 고 생 각 하 였다.
 그래서 나는 여 러 할 수 없 이 허위 이 든 아 간 지 5 개 월 만 에 즉 8 월
 (1966년) 에 허위 이 처 를 관 망 살 을 제 기 에 문 신 처 를 두고 이
 Москва 에 서 공부 하 고 있는 아이 들 을 Москва 로 오 게 리 였다.
 부모 들 이 아 문 갠 제 각 각 방 조 를 얻 어 공부 하 고 있는 아이 들 생 활

6.

행정은 아무 문제 없었다. 그러나 그때는 권정부 와 공산당의 혁명으로
 내가 Mockba 에 온지 일년은 못되어 나에게서 사색은 구하고 적은 나
 타 몫의 경제적인 방조로 적심자에서 벗어났었다. ¹¹
 젊은이를 삼행제가 다 때워준 나와도 말바들은 학사원까지 나
 왔다. 온출어와서도 나를 삼행제가 각각 제 몫을 남부 힘지
 않게 살고 있다. 그러나 아주 적지 않은 허위의 사회분광을 밝히려 할
 아겠다. 즉 나를 삼행제에 끼어 놓고 생계를 유지하고 나쁜 생각한다.
 즉 20년 동안 북조선에 가서 허위의 사회분광을 생활과
 부문을 다 아온 방조로 내가 위를 버리고 철학과 공부하고 있던
 아이를 이 고고 생활은 내가 살아 있는 온출까지도 못볼수 없다.
 내가 죽고 이 고고 사실을 다 보낼 것이다. 나는 나의 불행 수감이다.
 나의 청춘 시절과 건강을 말뚝히 상수원이라고 부르던 북조선
 에 가서 다 잃어버렸다. 그러나 나는 아직 살고 있다. 아마도 내가
 허위의 목적까지 사든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. 내가 오래 살고 있는 ^{20년}
 인은 다 른 것이 아니다. 즉 나를 삼행제와 그가 죽고 손자들의 광채를 보
 고 살고 있다. 나에게서는 아무 별 것이 없다. 다만 나를 삼행제 그가 죽
 는 나의 자살까지라고 나는 생각한다.
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는 때면 그 북조선 권정부와 그 공산당 공산주의
 정책이 어떠한 것일지 모르겠다. 그러나 나는 분명히 행를이 있
 으리라 하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이상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다.
 북조선에 내가서 일하러 온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불행 조선인들
 을 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그 자서한 사정을 볼 수 없다. 그러나 나는
 사람은 어떤 것이든 죽어 버릴 때에 내가서 불행인들과 함께 오겠
 음만 살아볼 사람만이 그 가난하고 빈곤한 인민들의 생활을 잘
 알 것이다. 혹은 어떤 경우 일군들이 자살은 두들 광을 내가서 되면
 항상 고금 때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안아 보지 못한다.
 그러나 나는 조선에서 내가 살아볼 수 없다. 그러나 나는 오겠음만

지방에서 그 인원을와 함께 살았기때문에 다른사람들이 모르는 사실들을 더 잘 알게 되었다. 그러므로 사실은 이를로는 다룰 수 없다. 이상으로 허벅이와 내가 북조선에 가서 더욱더 마르막 캠프에서만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들을 간단하게 쓰면서 쓴다. 같은 글은 허벅이의 외에 다른 여러사람들에게 재하여 간단하게 쓰려고 한다.

1956년 - 1960년은 그 이상 당시에는 소련에서 4간수들은 사람을 이라고, 4상검토에 걸리며 갈수록, 또 여러 지방 산골 광산, 환광, 평릉조합 같은 곳의 그 문법능량으로 내쫓기었다. 그 사람들을 이르는 그 한심한 형배 살아타는 것이 막 되었다.

주백항우, 박이환, 최철환, 고희망, 백창식, 허민, 리용식, 김영수, 김택룡, 안필, 리준백, 서준식, 장우익, 강우환, 최용환, 박태준, 김철운, 등등의 사람들을 이었다. 이상사람들은 4만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이다. 그 외에 4만은 4만 사람들을 이었다. 그 사람들을 이르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아내들과 부인들까지 다 쫓기어 산골 지방으로 갔다. 그들의 아이들은 이 소련으로 돌아 오겠다고 희망하여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가 체포된 당하고 관공에 박아죽은 하였다. 내쫓기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어 버려버리는 정책이었다.

그히말린 사람들의 부모나 자식을 이 소련에서 살면서 그들의 처를 낳려고 계속 북조선 정부와 같이 Blockade에 있는 북조선에 사관예문의 하나 계속 아본대장은 없다. 그 사람들을 이르는 가족들은 지 살았는지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.

결한번 거름하여 쓰고 싶은 것은 북조선에서 그 4상검토에 걸린 여러사람들, 소련에서 4간 사람들을, 소련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, 중국에서 이르는 사람들을, 북조선에서 이르는 애국자들을, 이권조선 해방운동에 열심적으로 활동한 쿠비말리 산우익을 필, 리호선, 허불환 같은 사람들이 다 히말리에 죽어 버려 버린 것이다. 그 죽어간 사람

를 다수는 문동광원 열성자들과 함께 맞아 주었다. 그때리고 말로만
 아 주이던 나고한다. ~~박근철~~, 박이완은 나그렇게 맞아 주었다
 라 ~~박근철~~은 신정애에 대해서 내가 나그대로 쓰려고 한다.

1959년-1960년 2시기에는 이런부터 열 불에서 살고 있던 조선사
 람들을 다 북조선으로 귀국하게 하는선 원사업, 임행에서 작되었다.

그 임행과 선정애 따라 수 많은 귀국응포를 이 북조선으로 귀국하
 게 되었다. 그 귀국응포들을 바치고 짐에 대한비 내사업에 대해서
 광장하였다. 사행권을 비하고 조발 생활에 필요한 가령과 구들을
 다 준 비하고 기다되었다. 그래서 여러 차례를 끝치어 큰 10만 원의
 국하게 되었다. 그 수량을 증하는 좀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증으로
 사인 수량을 주고 있고 다수들은 갈 수인 수량들이었다. 부자들은 자기
 공공광을 다 따라지고 와서 북조선 임부 바치기까지 하였다.

그들의 다수는 라 최고 기술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. 특히 학
 문과 기술 방면에서 혁신발전 사람들이었다. 귀국한 사람들은
 평양 지하에 이르러서, 구역, 농촌에 배치되어 살게 하였다.

일부와 같이 문맹하고 발전은 라 불우의 나라 사회에서 살던 그다
 람들에게는 그 북조선 정책이 또다시 밖에서 나그를 비키우게 된
 것이 큰 원망이었다.

한번은 내가 평양에 와서 를 어갈 권로 있고 관례관에 르는 를 어가
 지 못하게 하니 평양시 령은 만 한 공원 같은 데 밖 아치사다가 귀국응
 포 아즈머를 봤다 이 야기 한 걸 이 있었다. 그 아즈머를 은 갈과 같
 이 말하였다. "우리 열 불에서 는 만 있으면 쌀도, 고기도 무엇이 없
 것이 없이 살이 갖는 데 이 북조선에 와서 는 돈을 가지고 르 아흔 것
 이 있었어 비를 고통으로 면서 살게 된다 이런기 박힐 일이 어리면
 있을 말이오" 말하면서 몹시 슬퍼 하였다. 계속하여 "사물님은 말로 쓰
 겠다 들어갈 비방어있으냐 그것 이 열 백 명 광인가, 우는 인
 려는 아모데르 갈 공원은 있는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어
 어떤 고통을 지는 르는 것" 말하면

8.

인민들은 귀광할 시간이 끝나면 밤늦게 자라고 있는 수상님의 퇴직과 역사
 를 연구하는 강연회, 학생우류나가야 했고 평양시 건설공로우사회
 등 원근 나가야 했다. 그 평양시에는 흥행금지라는 것이 없이는 누구런의
 못들어간다. 그 흥행금지라는 것은 다만 귀광 예시 클광 자는 사람들에
 게 내주지 않는다. 게 원사 권에는 아님을. 어느 권칙이 죽거나 위엄한 병이
 드 칼이 가 볼 수 없다.

평양시 상권에는 여러가지 고음물품이나 낚고음, 즉 리한 식품품을 들쳐
 데우고 사탕을 예게 구경 반시키고 판매하지는 않는다. 이것이 죽 거름치
 광이 타는 것이 아냐고 부엌인가?

후외국 손님들이나 이편 국가 대표단들이 평양에 오게 되면 예는 평
 양시에 살고 있는 볼구와 (병선) 들을 흥락 즐기고 주지물군한다.

북조선 정부와 그 운동장 운동들의 권칙은 다만 거름과 광이다.
 수 많은 애국자들을 드살 광에 몰아넣고 죽이게 하는 그 권칙이야
 말을 약 죽이기 잭이 있다.

김보성이 자기는 광쟁 불멸론이 생각하고 수 많은 진실한 애국자
 들을 히 생시 ~~한~~ 그 죄는 먼치 못할 것이다. 그 죄를 말미암아 죄자차의
 자 커로 죽고 말았다. 아바른 그 약 죽한 제로가 끝날 때가 돌아왔다고
 생각해나. 나르나 이 많은 사람으로 다만 한가지 만원하고 있었다.

김보성이 죽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죽어야 한다는 원이 있다. 사람이
 사는 불생에서 누구에게나 한 번은 그 죽음을 오는 법이다 그 죽는 것은
 누구나 먼치 못하는 법이다. 다 본 그 차이는 나에 죽어 시 죽느냐? 히어
 시 죽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있다.

나는 평양에 오게 되면 어느 사람을 이 할 권칙 없이 게 죽일 만이 관
 예서 살아 갖 됐다. 밤늦게 자고 있는 위생사 임은 자어르른 것은 되고
 이 관이 타는 데 하루 밤 반 자고 나르 이가 부를 부를 히어 히고 평이 매
 우크 일 됐다.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예게는 할 나음을 못어 하고는 권해
 없다. 모욕을 하고는 임원 북을 그 양념 게 리나 이가치고 된 지무의 버는 것

는가? 평양시에는 거리가 44번이 늘고 먹은 내부 원이 골목목마라가 2차
다하고 있다. 그사람을 어떤 장에 나가 열 하였으면 국가에 큰 돈을 낼
것이다. 후회 후손보다 출입 통행증보다 큰 사람이 골목에 444번은 원
종도 이대로 적수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을 때 444고 있다.

이 세상에 어느 444로 사에 불구라 들이 없이 사는 곳 이 있는지 444
이 많은 사람으로 그 원 별 들은 힘 보았다.

편 어느 444 수로로 통행증 이 없이 못 444하게 하는 수로로 사는 다른
북조선 수로 평양 일 것이다.

은 세상에 어떤 444 어떤지 없는 2원 부득한 링 핵 만 쓰면 이 밤 늦게
기 자랑 하고 살아간다.

나는 지금에 와서 조 용한 기회만 가지게 되면 리 상수 원이라고
말 늦게 부르겠는 북조선에 가서 살 권을 약속해 마르 막 4년 동안
살아가던 그 일 이 바늘 알 에 보아는 것 처럼 사 물 가 리 여 서 원 링을
수 없이 그 날 그 날 볼 보 내고 있다. 말 에 의 롭 4724년 들 을 보
고 는 웃 음 로 웃고 말 으로 불 리 양 기 높 은 2세 월 볼 보 내고 있다.

러 자 서 한 것 을 다 산 자 변 끝 이 볼 여 리 않는다.
이상으로 허 의 이 와 4에 개 대 하여 편 2개 북 조선 링 세 에 대 하여
내가 잘 아는 사실 들 을 쓰 면 서 끝 친 다.

1995년 9월

Миссиссиссис 시 에 리 글 엘 렌 나.



공민회北方문화원
회의의 의결서 원본



Узбекистан

г. Ташкент - 702125

ул. Сайфулина дом 5

Тянь Ван - тон

г. Мытищи - 141018

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

Новомишускинский проспект дом 80 корпус 9 кв 51

Юн Е. К.